

“차나 한잔 마시게(喫茶去)”

중국 조주 중심 선사(778-897)의 유명한 격자(茶) 화두다. 옛 선사들은 차 마시는 일상 속에서도 깨침을 이루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오랜 옛날부터 차(茶)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무엇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불교와 차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차인의 한 사람인 초의 스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수천 년의 전통을 이어 온 차 문화가 최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대중에 파고들고 있다.

★차를 배울 수 있는 곳★

Table with 2 columns: 이름 (Name) and 연락처 (Contact). Lists various tea culture associations and their phone numbers.

전통 차 문화 대중화 바람

우리 차 문화는 일제시대 이후 한 때 명맥이 끊기는 듯 했다가 1970년대부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차에 대한 관심은 일부 전문 차인들이나, 차 동호회 중심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초종한 우리 전통문화의 한 맥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중적 생활문화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차 마시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맛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우리 일상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사진은 다담을 나누는 스님들의 모습.

청소년 심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기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지허 스님의 차> <우리 차 문화> <풍요에 띄우는 연서> 등 우리 차 문화의 역사를 다루거나 에세이형식으로 풀어낸 차 관련서들이 잇따라 발간되고, 사찰의 다도 모임도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심성교육 차원에서 다도 다종가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도입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경희대 특별대학원에 전문 차인들을 위한 다도대학원이 개설되었으며, 지역 문화센터나 복지관 등에도 차 문화 배우기 코

너가 신설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교교양대학원 동산불교대학에서도 불교다인(포교)사양성을 위한 불교다도교과를 개설했다. 한

국차문화협회 이귀례 이사장이 교장을 맡아 차의 생활화와 옛 선사들이 이어온 다선(茶禪)의 가르침도 터득해 나간다는 목표다. 또 동아시아차문화연구회에서도 초의 선사로부터 응송 박영희 스님에게로 전승되어온 제다법을 연구할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 밖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면서 건강을 위한 방법으로 차를 즐기는 이들 또한 늘고 있으며, 차를 마시며 듣는 다악(茶樂)까지 등장하는 등 차에 관심이 날로 늘고 있다.

선암사에서 일반인을 위한 산중다담을 진행하며 우리 차 문화 바로전하기에 힘쓰고 있는 지허 스님은 이러한 차 문화 확산에 대해 “단순히 마시는 차로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통문화의 뿌리로서 우리 차를 바로 알고, 마시고, 보존하는 데에 보다 관심을 갖는 계기가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한민족 최초로 바다를 개척하고 중국에 우리나라 불교를 전했다 장보고의 일대기를 뮤지컬화한 ‘해상왕 장보고’ 가재공연된다.

장보고의 불심·기상 ‘뮤지컬’로

22일~3월16일까지 해오름극장서 공연

극단 현대극장은 우리나라 뮤지컬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에 진출한 화제작 ‘장보고’를 새로운 감

계 언론으로부터 “아름다운 노래와 고전적 의상, 신선한 무대효과로 진취적 인물인 장보고를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으며 미주, 유럽, 호주,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24개국 26개 도시에서 공연됐다.

특히 지난해 파리 모가드 극장 공연 때에는 관객들의 끊임없는 기립박수에 배우들이 무대를 떠날 수 없을 정도로 각광 받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뮤지컬계에서 실력과 배우로 인정받는 박철호씨가 장보고 역을, ‘블루사이공’으로 이미 연기력을 인정받은 강효성씨가 장보고의 연인 버들아가리에 캐스팅돼 뛰어난 가창력과 탄탄한 연기력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02)762-6194

김주일 기자



◇7세기 제작 신라 반가사유상(국보 제78호).

뉴욕서 한일불교문화재(6~9세기) 명품전

반가사유상 등 92점...4월9일~6월22일

한·일 불교문화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과 일본의 6~9세기 불교미술명품들이 4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미국 뉴욕의 저팬사우더티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두 나라의 국보와 보물을 포함한 중요 명품들이 한 자리에서 비교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살상 △신라의 반가사유상과 일본의 사유상 등 7~9세기 불상 △두 나라의 전통과 기와 △두 나라의 불경과 불교 의식 용구 등 92점이다.

이번 전시회는 한·일 두 나라를 미국에 알리기 위해 설립된 코리아소사이어티의 도널드 그레그 회장과 저팬소사이어티의 윌리엄 클라크 주니어 회장이 기획했다.

김재경 기자

“이것이 서예작품?” “마음으로 읽으세요”

서예가 황석봉씨, 27일까지 ‘불립문자展’



◇황석봉작 ‘불립문자’

“이거 서예맞아요?” 서예가 황석봉(54, 원광대 중앙대학원 석사)과 강사씨가 27일까지 학교재 화랑에서 여는 개인전 ‘불립문자(不立文字)’에 나온 작품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다. 황씨가 ‘서예’라고 내놓은 작품에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한자나 한글은 단 한 자도 없다.

1991년 현대서예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이사장을 지낸 황씨는 이번 전시에서 캔버스나 오동나무판에 먹이나 아크릴 물감을 써서 휘갈겨 놓은 듯한 붓자국, 혹은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형태를 그린 칼자국 등 독특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02)720-1524

문화소식

무주스님 선화전 열어



◇무주스님작 ‘水流花開’.

20여년동안 전국 선방에서 정진해 온 선오당 무주(無住)스님의 선화전

이 19일부터 25일까지 종로구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열린다.

스님의 그림은 ‘선승답게 무거운 무욕에 가까운 선과 색으로 그려진 그림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탈속함과 천진함을 느낄 수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무시무중’ ‘수류화개’ ‘수미산’ ‘기원’ 등 자연스러운 색깔과 살아있는 생명력을 발산하는 그림 50여점이 선보인다. 011-598-1264

이주희 ‘연꽃’ 개인전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 진흙 속에 살면서도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꽃 닳기를 서원하는 화가 이주희씨가



◇이주희작 ‘열반의 세계’.

연꽃을 주제로 한 개인전을 연다.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 인사동 이형화랑에서 열리는 ‘연꽃전’에는 ‘우주의 생성’ ‘열반의 세계’ ‘하심’ 등 40여점이 선보인다. 이주희씨는 성신여대 미술학과를 졸업, 그동안 갤러리 회화전, 아카데미 회화전 등 수많은 초대전과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02)736-4803

방송 프로그램 안내. BBS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ch 32>의 방송 시간표와 하이라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재미년 새해 소원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신비의 염주.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안하세요.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을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만든 브라이트를 사용해본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과 같이 사용하고 3일만 사용하면 입 냄새는 없어지고 7일만 사용하면 치통, 충치, 찬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미백 효과도 있어요. 1set면 1년이상 사용하는데 가격은 60,000원입니다. 스님 저도 남는 것이 없어요. \*농협 : 360-12-046446 최승우 문의전화는 (02)722-2890 입니다.

신비의 은행석편지.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꼭 멈춥니다. 이외도 죽어가는 것은 다 살릴수 있어요. 스님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활력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어지고 하얀얼굴로 미백효과가 뛰어나요. 스님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가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제 고향,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이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스님만은 저를 믿고 베게속에 넣으시면 스님은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더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북한보건원에서 검증을 다 받고 한국에 왔어요. 스님 건강하시고 포교 많이 하세요. 스님 35,000원입니다. 스님 제 전화는 (02)722-1850 입니다. \*농협:170-12-056037 정애영